

여름철 폭염시 가축관리는 이렇게 ... 강원도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 시달

축사에 환기통 설치·지붕에 단열재 부착

강원도는 최근 30℃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강한 일사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을 각 시군과 축산농가에 시달하고, 여름철 가축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소= 소의 경우 기온이 높아지면 사료섭취량이 감소되고 기온

이 25℃ 이상시 소화율이 20~30% 저하된다. 특히 젖소는 산유량이 떨어지며 비타민과 광물질 요구도가 높아지고 번식 효율이 낮아지므로 축사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기 및 통풍장을 크게 설치하고 지붕에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

또 축사내부에 시원한 물을 살수하고 시원한 물과 조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소금을 함께 급여해

야 한다.

돼지=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해 체열 발산능력이 떨어져 고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단열, 차광막 및 송풍시설을 점검하고 밀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호성이 높은 사료 공급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닭= 닭의 경우 깃털에 쌓여 있어 체온조절이 어려워 무더위에

약하고 폭염시 산란율과 증체율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장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자연환기보다는 환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압 분무장치를 설치해 미세 물방울을 분무토록하고, 단위면적당 닭 수용율을 10~20% 정도 줄여 체열 발산을 최대한 증가 시켜주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폭염 발생시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 하도록 가축위생시험소와 시군, 축협, 생산자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광호 기자

“다시 찾고 싶은 동해안 만들자”

2011년 해변개장 민관군경 통합 협조회의 열려

지난 15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제2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수, 속초시장, 22사단장, 경찰관계자, 해변운영 책임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해변개장 민관군경 통합 협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현실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해변운영 관련 군부대 협조사항 전달 및 토의, 합의각서 체결 등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지역 선정 및 관리, 해안 출입통제 규정, 군사시설 손괴 및 무단출입 규정 등 해변개장관련 법령·규정을 설명하고 2010년 미흡사항, 개장 절차, 2011년 운영예정 해변



지난 15일 오후 2시 고성군청에서 2011년 해변개장 민관군경 통합 협조회의가 열렸다.

현황, 경계 보호 시설물 설치 및 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변 개장기간 동안 해안경계작전 취약요소 및 상황발생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고,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돼 사전에 완벽한 해안경계태세를 확립해 다시 찾고 싶은 동해안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승근 기자

한우 고급육 생산 도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 교육 실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는 지난 15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한우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농 농업경영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우·한우암소 번식관리, 거세한우·암소 비육요령,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 등의 내용으로 전개됐다.

또한 한우의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과 주요 질병의 종류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고급육 생산 기술교육에서는 암소개량 방법, 한우개체기록양식집을 통한 철저한 농장기록, 아미노산 강화 반추위 보호사료로 육량 육질 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져 한우농가가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NHN(035420)

2011년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의 방향이 확실해 저야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쉽겠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도하고 관망하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기에 손을 놓고만 있기도 아쉬운 흐름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시장은 자동차, 화학,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서 지수 역시 조정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도 업종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주도업종을 바꾸기에는 그들 지금의 한계와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메이저들은 자신감 있는 매매를 기대하기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도 어려운 여건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수의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주도업종의 단기적인 매매를 하거나 종목별 개별적인 흐름을 활용한 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활용한 매매를 해 볼 수 있

겠지만, 매도 시점을 놓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보다 거래소에서 NHN을 천천히 매매해 볼 수 있겠다. NHN이 무슨 기업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도 함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HN 추가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100,000원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2009년 200,000만 원대를 회복한 이후 2년간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기관과 개인의 많은 물량은 빠져나간 상황이고 그들의 매물을 외인이 모두 받아내며 주

가는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다. 결국 시장의 상승은 외인이 다시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고 주도업종을 다시 이끌기에는 수급이 꼬여 있어서 흐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NHN과 같은 종목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20억원을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20만원 이하 19만원까지 분할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고 18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매매 역시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